

No.20170517-001

제목: BUTTER

저자: 유즈키 아사코

페이지수: 460

장르: 소설

출간일: 2017년 04월 21일



<내용소개>

여성으로서의 가치, 열등감, 사랑, 욕망 등의 감정을 진한 버터처럼 묘사해 낸 소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일본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범인은 당시 35세였던 '카지마 카나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수십 명의 남성과 교제하며 결혼사기로 약 15억원을 갈취했다. 그 중 세 명을 살해하고 자살로 위조한 죄가 더해져 체포되었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죽음의 꽃땀이라고 불린 그녀는 남성 편력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외모 때문에 더욱 화제가 되었다. 《BUTTER》는 얼마 전 사형 판결을 받은 그녀를 모티브로 삼았다.

주간지에서 일하는 여성기자 '마치다 리카'는 몇 년 전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카지마 마나코' 취재를 시작한다. 그녀는 결혼 중매 사이트에서 알게 된 남자들에게서 차례로 돈을 뜯어냈으며, 수도권에서 벌어진 세 건의 연쇄살인사건의 피고인이다. 체포되기 직전까지도 블로그에 고급스러운 음식취향과 호화로운 생활에 대한 글을 작성하고 있었던 것, 다수의 남성들을 매료시킨 이력과는 어울리지 않는 용모 때문에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리카는 당시 다른 팀이어서 취재를 하지 못한 것을 줄곧 아쉬워했는데, 드디어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독점 인터뷰를 하기 위해 카지마 마나코에게 접근하면서, 리카는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온 여자의 인생에 점점 빠져들게 된다. 어떻게 이성에게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는지, 왜 남성들을 죽였는지, 왜 먹는 것에 집착하는지 등 여러 의문에 답하는 카지마 마나코는 이따금 섬뜩한 본성을 드러낸다. 제일 흥미로운 포인트는 리카의 변화다. 기자로서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던 리카는 자기도 모르게 세뇌 된다. 카지마 마나코가 지닌 힘에 농락이라도 당하듯, 미각은 물론 가치관까지 그녀를 닮아가는 과정이 리얼하게 그려진다.

용의자가 음식에 일가견이 있는 인물로 설정된 덕분에, 요리와 관련된 비유 및 묘사가 독자의 식욕을 자극할 만큼 자주 등장한다. 감옥에서 녹아 내리는 카지마 마나코의 욕망은 '버터'로 상징된다. 소설 도입부에서, 리카는 슈퍼마켓에 들러 버터를 사려고 하지만 실패한다. 수급 문제 때문에 1인당 1개로 수량 제한이 있는 데다가 그마저도 구할 수 없어 품절 상태다. 결국 그녀가 골라든 것은 버터와 가장 흡사한 맛을 내는 마가린이었다. 깊고 농밀한 맛을 지닌 버터와 그 맛을 모방하는 마가린. 제목과 그 장면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소설을 읽으며 찬찬히 생각해보면

좋을 것이다. 어느 충격적인 사건을 관점을 바꿔 바라봄으로써, 여성의 사랑과 욕망을 색다르게 담아낸 소설이다.

<저자소개>

유즈키 아사코

1981년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릿쿄대학 프랑스문학과를 졸업하였다. 2008년 〈포켓 미, 낫 블루〉로 제88회 올 요미모노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 《이토군의 A to E》로 150회 나오키상 후보 및 《서점의 다이아나》로 151회 나오키상 후보에 올랐다. 《한탄의 미녀》와 《런치의 앳코짱》은 NHK BS 프리미엄에서 드라마로 제작되었으며, 2015년 《나일 퍼치의 여자들》로 제28회 야마모토 슈고로 상을 수상하였다. 그 외 《달콤 씹싸름 사중주》, 《사모님은 크레이지 프루트》, 《거북한 후배》 등의 작품이 있다.

No.20170517-002

제목: 불량품 탐정

저자: 타키타 미치오

페이지수: 293

장르: 소설

출간일: 2017년 04월 28일



<내용소개>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과정과 콩트의 코믹함이 숨씨 좋게 배합된 소설

작가 타키타 미치오의 <시골 형사>시리즈는, 어수룩한 외모와 소심한 성격에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닌 형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에게 작가 등단 기회를 준 작품이며, 일본에서 드라마로 제작될 정도로 꽤 인기를 모았다. 생동감 넘치는 캐릭터들의 조합과 코믹한 분위기, 사건의 진상을 밝혀나가는 과정이 탄탄하게 엮이면서 호평을 얻었다. 웃음과 미스터리를 능수능란하게 조절하는 작가의 특기는 신작 《불량품 탐정》에서도 빛을 발한다.

작가는 학원물 집필 의뢰를 받고 고민하던 중, 냉장고를 열었는데 얼음이 있어서 주인공 이름을 아이스 큐브라고 지었다고 한다. 무성의해 보일 정도로 즉흥적이고 장난기 가득한 이름처럼, 캐릭터의 설정과 성격도 절대 평범하지 않다. 천재인 것은 확실하지만 구체불능,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은 두뇌에 굵은 철근을 연결한 것 같은 '전설의 불량품'. 이것은 고교생 '하쿠조 카즈마'가 이 소설의 주인공이자 자신의 1년 선배인 '아이스 큐브'를 묘사하는 말이다. 괴짜 고교생 탐정 '아이스 큐브'가 독설이 특기인 후배 '하쿠조 카즈마'와 콤비를 결성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결하는 다섯 편의 에피소드가 차례로 실려있다.

첫 화 <불량품 탐정>은 교내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다루어 다소 무겁다.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과 그 배후 및 진짜 의도를 주인공이 추리해 나간다. 두 번째 이야기부터는 아이스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과 경찰서 등 학교를 벗어나 바깥으로 나간다. 어느 남녀의 죽음 이후 특정 장소에 나타나기 시작한 유령, 타코야키 가게를 운영하는 일가를 둘러싼 절도사건, 악의를 갖고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어느 극단의 기물 파손 등 사건의 종류와 분위기도 가지각색이다. 가는 곳마다 이상한 사건을 만나 휘말리게 되는 것은 명탐정의 숙명이다. 소설의 주인공인 아이스와 카즈마도 마찬가지다. 평소에 카즈마에게 장난 섞인 구박을 받기 일쑤인 아이스는, 사건 현장에 서면 남들이 놓친 단서를 예리하게 찾아낸다. 추리력을 발휘해 가설을 세우고 확인해 나가는 모습은 매력적인 반전이다. 그의 엉뚱함에 주위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둘러 버린다. 사건을 통해 알게 된 현직 형사들과 마주치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익살스럽게 대화를 주고 받는 재미가 더욱 커진다.

유머와 미스터리가 불필요한 부분 없이 산뜻하게 압축되어 있다. 첫 이야기 외에는 비교적 가벼운 일상적인 사건에 속하지만, 주요 캐릭터들의 존재감이 워낙 강렬하므로 독자들이 지루함을 느낄 틈이 없다. 복선과 결말이 제대로 마련된 흥미진진한 콩트 풍 작품이다.

<목차소개>

불량품 탐정 / 여름방학 납량 특집, 모두가 절의 스님 / 아르바이트 번외지, 타코야끼의 사투/ 참치 머리로 경찰서 견학 / 앨리스와 아이스. 그리고 10월의 '3월의 토끼'

<저자소개>

타키타 미치오

1973 년 후쿠시마 현에서 태어났으며, 니혼대학 예술학부를 졸업하였다. 2006 년 <시골형사의 취미와 일>로 제 3 회 미스터리즈!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하였다.

No.20170517-003

제목: 퇴사하고 싶다고?

저자: 사토 미쓰로

페이지수: 408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7년 04월 14일



<내용소개>

회사를 그만둬야 할까? 퇴사가 고민될 때, 회사의 신이 당신을 찾아가 답하다

퇴사의 유혹은 3·6·9 주기로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 아직 낯선 것이 많은 입사 3개월 무렵, 버티다 보니 6개월이 되었을 때, 꽤 익숙해진 9개월 즈음 새삼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1년이 지나면 3년이 될 무렵 다시 퇴사를 떠올린다. 이런 저런 사내 문제도 있을 것이고, 별다른 비전도 없는데 매일 쳇바퀴 도는 생활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먼저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이나 이직을 한 동료들이 잘 나가고 있다면, 본인도 얼른 그만둬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 이 책을 읽어보길 바란다. 과격한 하나님의 철학 인문예세이 《하나님과의 수다》의 저자가 이번에는 회사의 신을 데리고 돌아왔다. 400여페이지나 되는 책 속에는 동시대 샐러리맨들의 고민이 압축되어 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라는 설문조사 결과의 답변을 바탕으로 총 18편의 이야기를 구성했다.

본문은 영업1과의 과장 ‘요시미야 지타로’를 중심에 둔 스토리텔링으로 되어 있다. 그는 니가타에서 도쿄로 발령을 받았다. 부진을 겪는 영업 팀을 되살리려 자신만만하게 나서지만, 이전에 배우고 깨달았던 것들이 도쿄에서는 좀처럼 통하지 않는다. 그는 회사 내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시설팀 직원, 청소부, 임원 차량 운전기사, 사내식당 직원, 경비원 등에게 직장 생활의 고민을 상담하고 명쾌한 조언을 얻는다. 부하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고민할 때, 원래 상사의 역할이란 책상에 커피를 얹지르는 것이라며 유머 섞인 말을 건넨다. 뒷사람이 너무 일을 잘하고 완벽하면 다가가기 어렵기 때문에 마음을 열 계기를 만들어주라는 뜻이다.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답답해 할 때에는 어떤 답을 주었을까? 자기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에 얽매이지 말고, 최종 결과를 바라직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회사를 배경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인공과 유지보수 담당 직원들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등장한다. 입사 3년 차부터 10년 차에 이르는 직속부하들을 비롯해 사장, 인사부, 경리부, 판매부 등 타 부서 사람들이 등장해 현실감 넘치는 에피소드를 만들어나간다.

저자는 실제로 10년 간 샐러리맨 생활을 했다. 직접 체험한 회사생활을 바탕으로 복잡미묘한 샐러리맨의 세계를 웃음과 감동을 섞어 보여준다. 대화형식으로 되어 있어 술술 읽히는 것이 장점

이다. 현장의 생생한 고민들에 대해 참신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목차소개>

- 제 1화: 부하가 협력해주지 않아서 -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 제 2화: 선배가 샐러리맨 탈출에 성공했기 때문에 나도 -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 제 3화: 회의 시간이 너무 길어 화가 날 정도여서 -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 제 4화: 부하에게 몇 번이나 지시해도 움직이지 않아서 -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 제 5화: 상사의 괴롭힘에 대해 회사측에 상담할 수 없어서 -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 제 6화: 회식이 싫어서 -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 제 7화: 우수한 동료와 비교당해서 -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 제 8화: 일에 보람을 느끼지 못해서 -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 제 9화: 상사지만 중대한 결단을 내리는 일이 어려워서 -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 제 10화: 직장동료와 취미가 전혀 맞지 않아서 -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 제 11화: 부하가 언제나 실수만 해대서 -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 제 12화: 업무상 중대한 실수를 저질러 버렸기 때문에 -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 제 13화: 월 120시간 야근으로 너덜너덜해졌기 때문에 -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 제 14화: 아이는 낳지 말라는 말을 상사에게 들어서 -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 제 15화: 점심식사를 함께 할 상대가 없어서 -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 제 16화: 출세 경쟁에 넌더리가 나서 -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 제 17화: 보너스가 3년이나 나오지 않아서 -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 제 19화: 자기 의견이 통하지 않아서 -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저자소개>

사토 미쓰로

삿포로의 대학을 졸업한 후, 10년간 에너지 관련 기업에서 근무하였다.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통감하고 2011년에 블로그를 시작했다. 참신한 시점이 화제가 되며 순식간에 각종 랭킹에서 1위에 오르게 되었다. 락 밴드 "sun of rock"의 리더로서 음반을 내는 등 음악활동에도 힘 쏟고 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토크쇼와 피아노 연주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No.20170517-004

제목: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저자: 와타나베 가즈코

페이지수: 141

장르: 에세이, 자기계발

출간일: 2017년 03월 16일



<내용소개>

실패와 좌절, 스스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소중한 기회로 바꾸는 자세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충격적인 경험. 이후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극복해내면서 존경 받는 종교인이자 교육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와타나베 가즈코 수녀. 일본에서는 젊은 세대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용기를 건네는 멘토로 불리며 사랑 받았다. 올해 3월 출간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다》는 2016년 12월 30일, 와타나베 가즈코 수녀가 영면하기 열흘 전에 교정을 마친 유작이다.

책 본문은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 소원과 소망을 이루는 일, 마더 테레사의 가르침, 아름다운 삶을 사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의 실제 경험과 깨달음이 꾸밈없는 진솔한 언어로 쓰여져 감동을 선사한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믿는 신에게 여러 소원을 빈다. 병이 낫도록 해주세요,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업을 성공시키게 해주세요 등 본인을 포함해 가족·친지와 관련된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도한다. 요즘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스스로 목표를 찾고, 요구하고, 출발선에 설 기회를 얻고자 문을 두드리는 진취적인 자세를 미덕으로 여긴다. 하지만, 때로는 모든 일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한 법이다. 이 책의 저자인 와타나베 가즈코 수녀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수용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실패와 고난, 시련은 인생을 깊이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약이다. 누구나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절실하다고 다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욕심나는 것을 신에게 간청하지만, 신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내려준다. 쌍방이 일치하면 매우 행복하겠지만 어긋나는 경우가 더 많다. 목표달성에 실패하였을 때마다 과도한 무기력과 자학 및 우울함과 분노 등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한다면 본인만 손해를 보는 셈이다.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여 살아가는 의미를 찾아내는 계기로 삼는 편이 더 이롭다. 이후 재정비하여 다시 도전하거나 새로운 길을 찾아냈다면, 성숙과 성장이 실현된 것이다.

학력이나 직업이력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 사람이 지나온 '고난의 경력'이다. 대체할 수 없는 삶

의 흔적이자 업적이며,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와타나베 가즈코 수녀가 삶의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담겨있다. 무거워진 마음을 가볍게 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힘이 솟아나게 해 줄 책이다.

<목차소개>

제 1장: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제 2장: 사람을 키운다는 것

제 3장: 소원, 소망을 이룬다는 것

제 4장: 마더 테레사가 가르쳐 준 것

제 5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

<저자소개>

와타나베 가즈코

1927년 2월, 교육총감 와타나베 쇼타로의 차녀로 태어났다. 세이신여자대학 졸업 후 1954년 쇼치대학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1956년 노트르담 수녀회에 입회, 미국으로 파견되어 보스턴칼리지 대학원에서 공부하였다. 1974년 오카야마현 문화상(문화공로), 1979년 산요신문상(교육공로), 오카야마현 사회복지협회의 제세상, 1986년 Soroptimist 일본재단에서 센 카요코 상, 1989년 미키 기념상을 받았다. 노트르담 세이신여자대학(오카야마)교수를 거쳐 1990년 3월까지 동 대학 학장, 이후 노트르담 세이신 학원 이사장을 맡았다. 2016년 12월 30일 타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사랑과 기도로 아이는 자란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것들》, 《아름다운 사람에게》, 《사랑과 격려의 말 366일》, 《마더 테레사 사랑과 기도의 말 (번역본)》 등 다수가 있다. 2012년 출간한 《당신이 선 자리에서 꽃을 피우세요》는 140만부를 넘는 베스트셀러로 큰 화제가 되었다.

No.20170517-005

제목: 불안을 없애는 기술

저자: 시마즈 요시노리

페이지수: 232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5년 01월 07일



<내용소개>

불필요한 걱정은 그만! 당신을 초조하게 만드는 '불안'을 없애줄 16가지 기술

인생은 거대한 사이클이다. 다시 되돌릴 수 없기에 누구나 막연한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 요즘에는 그 불안의 정도가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전 연령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청년층은 심각한 취직불황과 불안정한 고용 상황 때문에 연애, 결혼, 주택 구입 등을 포기하는 N포세대가 되었다. 중·장년층도 언제 직장에서 해고될지, 점점 앞당겨지는 퇴직 때문에 이후 무엇을 하며 생계를 꾸려야 할지 걱정이다. 노년이 되면 생활 수준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질 수 있으므로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베스트셀러 《화내지 않는 기술》의 저자가 이 타이틀에서는 불안을 말끔하게 씻어내는 기술을 전하고 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무언가의 그림자를 발견해 놀랐을 때, 어떻게 될까? 도둑·괴한·유령 등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떠올리며 스스로 부풀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차분하게 상황을 받아들인 후 환하게 불을 켜 눈으로 확인하면 될 일이다. 마찬가지로, 불안의 근원을 찾아내 없애면, 초조함과 걱정도 사라지므로 인생은 더욱 즐거워질 것이다.

저자는 불안을 사라지게 할 16가지 기술을 총 5개 장을 통하여 설명한다. 1장에서는 불안에 대한 처방전을 대략적으로 이야기한다. 우선, 초조해하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인식해야 한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때문인 경우와 원인을 알아도 신의 뜻에 맡겨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제시하는 2장에서는, 불안으로 인해 정체상태에 놓이기 쉬운 몸과 마음을 움직여 '행동'하는 것이 불안해소의 지름길임을 강조한다. 이어 3장에서는 행동을 걱정으로 바꾸는 기술을 다룬다. 걱정은 불안과 동의어처럼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주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구별돼야 한다. 4장은 불안을 없애는 행동의 방해요소인 '망설임'에 대해 생각해 본다. 목표달성을 위해 앞을 내다보는 능력을 강화하고 망설임을 없애는 기술을 소개한다. 5장은 불안을 능숙하게 다루면서 공존하는 삶에 대해 논한다. 하나의 불안을 없애면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에 휘둘리지 않고 적절한 거리를 두고 대처하는 기술을 제시한다.

불안해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가능성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할 수 있다, 잘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초조함이 가라앉는 것도 그 때문이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은 시간이 해결해줄 수 있으므로 단념하는 것도 방법이다. 불안을 통제하면서 좀 더 긍정적이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힌트를 담고 있는 책이다.

<목차소개>

- 1장: 불안을 바라보는 기술
- 2장: 불안을 없애는 기술
- 3장: 불안을 걱정으로 바꾸는 기술
- 4장: 행동을 이어가는 기술
- 5장: 불안과 잘 지내는 기술

<저자소개>

시마즈 요시노리

교육 컨설턴트, 일반사단법인 일본 리더스학회 대표이사 및 리더스 아카데미 학장. 일반사단법인 일본 앵거매니지먼트(anger management)협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와세다대학 강사로 재직 중이다.

대학 졸업 후, IT 계열 벤처 기업에 입사하였다. 동기 100 명 중 영업실적이 가장 뛰어난 사원으로 활약하였으며 그 공적을 인정받아 24 세라는 젊은 나이에 최연소 영업부장으로 발탁되었다. 취임 3 개월 만에 담당부문의 실적이 전국 1 위가 되었다. 28 세에 독립, 창업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이전부터 알고 지냈던 두 명의 경영자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다. 3 년 후, 출자회사 3 사를 흡수 합병하여 실질적으로 5 년 만에 52 억 엔의 가치를 지닌 회사로 키웠으며 2004 년 5 월 주식상장(IPO)을 마쳤다. 2005 년 <가르치는 사람이 나아지지 않으면 《인간》도 《기업》도 《사회》도 나아지지 않는다>며, 차세대를 이끌어 리더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 '리더스 아카데미'를 설립하였다. 강연·연수 등을 통해 가르치는 측(상사·부모·교사 등)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건네고 있다. 2007 년 싱가포르로 거점을 옮기고 글로벌리더 육성에도 힘쓰기 시작했다.

2012 년에 시작한 <감정 매니지먼트가 인생과 업무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테마로 <화내지 않는 기술>과 부모자녀관계 개선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자기 재능을 키워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 세미나 <화내지 않는 육아>가 큰 호평 속에 일본 및 아시아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었다. 2013 년에는 일본으로 거점을 다시 옮겨 일반사단법인 일본 리더스 학회를 설립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시리즈 90 만부를 돌파한 베스트셀러 《화내지 않는 기술》《화내지 않는 기술 2》《아이가 변한다, 화내지 않는 육아》를 비롯하여 《당연하지만 쉽게 하지 못하는 상사의 규칙》《목표를 달성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유능한 상사로 살아남기》등이 있으며 저서는 누계 122 만부를 돌파했다.

No.20170517-006

제목: VR비즈니스의 성공 법칙

저자: 일본산업신문(편집)

페이지수: 216

장르: 비즈니스(IT)

출간일: 2017년 04월 22일



<내용소개>

스마트폰의 뒤를 이을 차세대 IT산업, 응용범위를 넓혀가는 VR 비즈니스의 현재와 미래상

가상현실 즉 'Virtual Reality(VR)'는 컴퓨터 프로그램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특수한 기기를 사용하여 인간의 감각으로 연결, 현실인 것처럼 체험하게 하는 기술이다. 주로 사용되는 단말기는 안경처럼 머리에 쓰는 HMD(Head Mounted Display)다. 정밀하고 섬세한 영상을 표현해내는 디스플레이 기술, 머리와 손의 미묘한 움직임을 인지하고 반영하는 센서 기술, 소리의 강약과 방향 등을 재현하는 음향 기술 등을 고루 필요로 한다.

이 책은 일본경제신문사가 발행하는 <일본산업신문>에 연재된 VR 관련 칼럼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주목 받고 있는 VR산업의 개척자들과 리더들을 소개한다. 그들의 가치관과 목표를 통해 VR비즈니스의 성공 법칙은 무엇인지 생각해볼 것이다.

도입부 격인 1장에서는 VR의 현재와 성장 전망을 제시한다. 2016년은 VR의 원년이라 불린 해였다. 페이스북의 Rift, HTC의 VIVE, 소니의 PSVR 등 여러 회사에서 차례로 HMD 판매를 개시하면서, 연구실에 갇혀 있던 VR을 일반 가정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2장부터 5장까지는 구체적인 케이스를 집중 분석하며 성공 이유를 상세히 알아보고, 각 기업의 주요 인물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추가하였다.

첫 주자는 누구나 VR을 쉽게 체험하도록, 간단하게 장착하고 이용할 수 있는 HMD를 개발하겠다는 '소니'다. 큰 호평 속에 판매 중인 '플레이스테이션 VR (PSVR)'의 개발기와 향후 산업전망 및 목표에 대해 들어보았다. 80년대 아케이드 게임의 최강자였던 '반다이남코'도 VR분야에 힘을 쏟고 있다. 일본 국내 최초 VR전용 시설을 개장하여 일반인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사람마다 VR에 공감하고 몰입하는 능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 격차를 어떻게 줄일 지 고심 중이다. 모바일 게임회사 '코로프라'도 새로운 흐름에 대응하고자 VR전용 게임 발매 등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다. 한편, VR에 없어서는 안 될 360도 영상 제작에 주력하는 '후지테레비'는 시청자를 끌어 모으는 스토리를 핵심요소로 꼽았다. 기술의 발달로 크나큰 변화를 맞고 있는 콘텐츠 업계의 현황을 소셜게임회사 'GREE'와 광고회사 '덴츠'를 통해 짚어본다. 현재 가장 움직임이 활발한 곳은 게임, 영상 등의 분야지만 점차 VR 응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마지막 6장에서는 의료, 부동산, 재해대책 등 타 분야의 사례와 가능성을 제시한다.

가상현실(VR)은 증강현실(AR), 복합현실(MR)과 함께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업계 최전선에서 바라보는 VR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책이다.

<목차소개>

1장: VR은 가상현실이 아니다

2장: '간편함'을 추구하라! - 소니 '플레이스테이션VR (PSVR)'의 도전

3장: VR공감능력의 격차를 - 국내최초로 전용 시설을 만든 반다이남코

4장: VR만의 는 성공체험 밖에 있다 - 코로프라가 믿는 가능성

5장: 스토리로 승부해라! - 후지테레비, GREE, 덴츠의 야망

6장: 모든 것이 체험으로 - 의료, 부동산, 재해대책 외

No.20170517-007

제목: 단숨에 배우는 세계사

저자: 아키타 소이치로

페이지수: 216

장르: 교양(역사)

출간일: 2016년 08월 31일



<내용소개>

세계의 '중심'이 바뀌어가는 경로를 통해 5000년의 역사를 짚어보는 세계사 입문서

세계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각각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다. 한국은, 여전히 핵과 미사일에 몰두해 있는 북한 덕분에 언제나 세계의 관심을 받는다.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향해 돌연 군사적 공격을 감행한 트럼프 때문에, 한동안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설과 전쟁 관련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EU탈퇴, 곳곳에서 벌어지는 내전, 외로운 늑대의 차량 테러 등 각종 사건사고가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들은 어느 한 순간 갑자기 시작된 것들이 아니다. 몇 년, 수십 년, 수백 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문제의 원점이 보인다. 우리가 세계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다.

세계사는 범위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세히 파고들면 지친다. 《단숨에 배우는 세계사》는 제목 그대로, 약 5000년에 이르는 세계사의 큰 틀을 잡으며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 책이다.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닌 이상 어떤 사건의 이름이나 연도를 달달 외울 필요는 없으므로, 시대와 시대를 잇는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것을 강조한다.

본문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세계사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 사고방식에 대해 이야기한다. 특정 지역에서 문명이 생겨나고 전파되며 영향 범위가 넓어지는 과정, 특히 번영을 누리는 강대국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이미지화 할 수 있게 소개한다. 2부는 세계사 통사 해설이다. 입문서이므로 다른 책들에 비해 압축된 분량이지만 핵심을 깨닫는 데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는 로마제국이 패권을 쥐고 있었지만, 1800년대에는 산업혁명에 성공한 대영제국의 시대였다. 세계의 중심 즉 번영의 주체가 시대에 따라 변천하는 경로를 짚어보는 방식으로 전 시대와 전 지역에 걸친 역사적 스토리를 정리한다. 과거의 영광은 어떻게든 후대로 이어지므로 분석해 볼 의의가 있다. 3부는 과거를 통해 현대 세계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문명이나 국가가 쇠퇴할 때 보이는 징조를 '대기업 병'과 연결시키거나, 관용 및 유연한 태도를 상실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상기시킨다. 현대세계의 중심, 그 이웃과 이웃들을 한 번씩 되돌아보며 마무리한다.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이다. 눈높이에 맞는 수준에서 출발해 흥

미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난도를 높이고 심화과정으로 발을 들여야 한다. 이 책은 세계사 공부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목차소개>

제 1부: 세계사를 보는 시점

(〈밤의 지구〉로 보는 현대 세계 / 먼 과거의 〈밤의 지구〉는 어땠을까 / 〈번영의 변천〉이라는 시점 등)

제 2부: 중심을 옮겨가며 살펴본 세계사

(서아시아의 문명 / 그리스와 로마 / 이슬람의 번영 등)

제 3부: 세계사를 통해 현대를 고민한다

(왜 〈옆에서 옆으로〉 중심이 이동하는 것일까 / 번영의 중심에서 일어난 〈대기업 병〉 / 유연함과 관용을 잃는다면 등)

<저자소개>

아키타 소이치로

사회구조 연구가. 1965년생, 와세다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민간기업에 근무하면서 교육관련 NPO에 참여하여 사회과학 계열의 저서를 집필하고 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그 후 십 수년간 일한 회사를 그만두고 투자신탁회사 설립에 참가 하지만 실패, 무직생활을 거쳐 지금은 청년을 위한 취직상담 일을 하고 있다. 사회와 역사에 관한 〈많은 사람이 알 가치가 있는, 오래 지켜가야 할 지식을 전하는 것〉을 신념으로 삼고 있다.

No.20170517-008

제목: 날씨병(Weather Pain)

저자: 사토 준

페이지수: 248

장르: 건강

출간일: 2017년 05월 17일



<내용소개>

날씨가 영향을 끼치는 고통과 불안, 그 원인과 치료방법을 담은 안내서

“비가 오려는지 무릎이 쭈시고 허리가 아프다”고 말하는 아주머니와 할머니들을 자주 봤을 것이다. 평소 퇴행성 관절염을 앓는 사람들은 장마철이 되면 통증이 더 심해졌다며 괴로움을 호소하는 일이 빈번하다. 관절염 환자의 신체가 건강한 사람보다 날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이미 의학적으로 증명되었다. 기압이 낮아지는 장마철에는 관절 안의 압력이 상승하고 관절액이 팽창하면서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통증이 악화될 수 있다. 별다른 질환이 없는 사람들도 기상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에는 컨디션 난조를 겪는다. 봄을 탄다, 가을을 탄다 하면서 우울함이 찾아오는 것도 기압변화의 영향일지 모른다.

이 책은 일본의 날씨병 연구 1인자가 날씨병의 원인과 대처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부터 ‘날씨병’이라는 용어가 미디어에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날씨병’이란 기상 상태의 영향으로 생겨나거나 더 악화되는 만성적인 통증을 지칭하는데, 중대한 질환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주위에서 보기에 별로 아픈 것 같지도 않은데 날씨 탓을 하고, 갑자기 아프다며 업무에 소홀하거나 무기력하게 행동하므로 좋지 않은 인상을 준다. 그런 반응들이 다시 스트레스가 되어 괴롭힌다. 통증을 없애지 않는 한,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저자는 일본에서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날씨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수치자료와 함께 제시하며 발생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기본적으로는 ‘기압 등의 날씨 변화를 신체가 감지한다 → 변화가 교감신경에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 통증이 생긴다’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편두통, 긴장형 두통, 경추 부근 골격 변형과 신경 염증 등을 일으키는 경추증, 어깨 결림, 요통, 퇴행성 관절염, 류머티즘, 섬유근통증 등이 있다. 질병의 발병원인은 다양하지만 날씨 역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여러 연구 결과와 사례를 통해 이해시킨다. 원인을 알았으니 대처 방법도 필요한데, 본문에서는 생활습관 개선부터 최신기기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다양하게 소개한다.

날씨가 신체에 그렇게나 큰 영향을 주는 것일까?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너무 당연해서 의식하지 못할 뿐, 기상 상태는 시시각각 눈에 보이지 않게 신체에 작용하고 있다. 이 책은

날씨병의 A to Z를 간추려 담은 유용한 가이드북이므로, 건강한 인생을 위해 참고하도록 하자.

<목차소개>

제 1장: 전국에서 1000만 명이 앓고 있는 <날씨병>

제 2장: <통증>를 알면 <날씨병>은 무섭지 않다

제 3장: 사람은 이렇게 <날씨병>을 겪는다

제 4장: 치료방법과 대처방법을 알면 <날씨병>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제 5장: 치주질환, 갱년기 장애, 뇌졸중도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

<저자소개>

사토 준

의사(의학박사). 나고야대학 교수를 거쳐 아이치 의과대학의 학제적 통증 센터 객원 교수를 맡고 있다. 2005 년에 동 센터에 일본 유일의 <날씨병 외래>를 개설하였으며 날씨병 연구와 진료의 1 인자다. NHK <타메시테 갓텐(ためしてガッテン)>, 니혼테레비 <세계에서 제일 받고 싶은 수업>등 TV 에서도 활약 중이다. 저서로는 《날씨병을 고치면 두통, 어지럼증, 스트레스가 없어진다!》등이 있다.

No.20170517-009

제목: 루이와 로봇

저자: 오모리 케이

페이지수: 241

장르: 아동 문학

출간일: 2016년 08월 01일



<내용소개>

소년 루이와 로봇의 만남과 이별, 우정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이야기

어른보다 순수하고 편견이 덜하기 때문일까요? 외계인과의 교류를 다룬 《ET》,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 유령이 등장하는 《꼬마 유령 캐스퍼》등 낯선 존재와 스스럼 없이 친해지는 아이들을 그린 작품들이 꽤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물이나 로봇과 가장 먼저 마음을 열고 가까워지는 쪽은 대부분 '아이들'입니다. 《루이와 로봇》은 한 소년과 로봇의 만남을 그린 소설입니다.

초등학생인 루이는 여름방학이 끝난 다음 날, 갑자기 집에 등장한 로봇과 마주쳐 깜짝 놀랍니다. 전자기기 회사에 근무하는 아버지가 지인에게 부탁을 받아 집에 데려온 것입니다. 로봇 '3A-3'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당분간 루이의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로봇은 3원칙에 따라 행동합니다. 사람에게 부탁 받은 일을 한다, 하지만 그 일이 부탁한 사람에게 좋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 부탁을 거부했을 때 비난이나 벌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킨다. 루이와 루이의 형은 로봇이 숙제를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자 실망하지만 그것도 잠시, '보롯'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사회의 상식을 익히며 사람들과 친해지도록 도와줍니다.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에 데려가 일일 학생으로서 같이 수업을 듣게 한 것은 보롯에게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니다. 루이가 정원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다가 밑을 지나가는 로봇을 보지 못하고 뛰어내리는 바람에 충돌하기도 합니다. 결국 다리에 깃스를 한 루이는 로봇과 같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던 순간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게 됩니다. 어느덧 겨울이 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한 해의 끝이 다가옵니다. 로봇도 루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크리스마스 이브와 산타클로스, 선물을 받는 경험을 합니다. 부모님은 사전을 읽으며 열심히 공부하는 로봇에게 독서용 라이트를, 루이에게는 휴대용 장기판 세트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들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보롯'이 산업스파이일지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남자에게 유괴되는 위기의 순간, 우여곡절 끝에 루이가 형과 같이 발견하여 되찾습니다. 즐거웠던 시간들은 빠르게 지나가버리고 어느덧 이별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자신이 소멸되지 않는 한, 루이와 보낸 시간들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말하는 보롯. 어느새 정들어버린 이 두 친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여러 분야에 로봇이 등장, 점점 정교하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

과 로봇이 친구가 되는 시대가 올 지도 모릅니다. 자신과 다른 대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목차소개>

루이와 로봇

1. 어시스턴트 로봇 1호
 2. 우리 집에 로봇이 왔다
 3. 로봇, 초등학교에 일일 입학하다
 4. 루이와 로봇, 김스를 하다
 5. 즐거운 크리스마스
 6. 로봇, 유괴당하다
 7. '보랏'을 지키는 모임
 8. 이별 모임과 별집소동
 9. 안녕, 영원한 친구
- 타치가와 선생님의 편지

<저자소개>

오모리 케이

No.20170517-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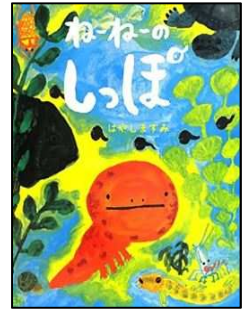
제목: 네네의 꼬리

저자: 하야시 마스미

페이지수: 32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3년 07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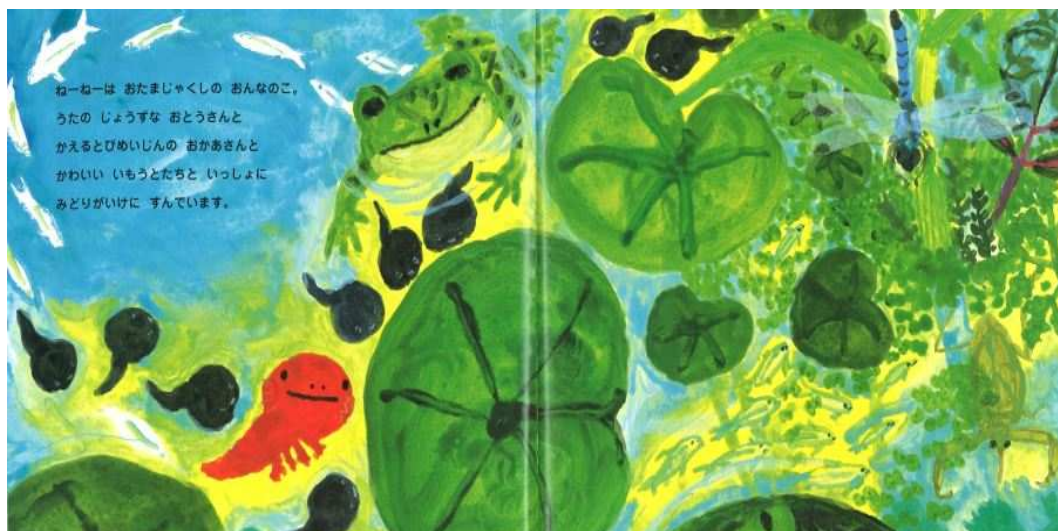
<내용소개>

꼬리가 없어지지 않는 올챙이 '네네'의 정체, 과연 무엇일까요?

올챙이 '네네'는 꼬마 아가씨입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아빠, 점프가 특기인 엄마, 귀여운 여동생과 호수에 살고 있습니다. 또래보다 몸집이 큰 네네는 훌륭한 개구리가 될 것이라고, 모두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개구리로 변신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커지기만 할 뿐 꼬리는 그대로입니다. 점프에 실패할 때마다 부모님은 꼬리가 금방 떨어질 테니 괜찮다고 격려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는 네네에게 꼬리를 잘라야 개구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겁이 난 네네는 한밤중에 집을 나와 무작정 도망칩니다. 아무리 수소문해도 자기처럼 큰 올챙이는 없었습니다. 실망에 빠진 그 때, 네네는 자기와 똑 닮은 상대를 만납니다. 도롱뇽이었습니다. 네네는 꼬리를 자를 필요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개구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물론 양육을 책임지는 부모에게도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과 다른 딸 네네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개구리 부모, 개구리가 되려면 꼬리를 자르라고 하는 의사의 태도가 대조적입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생각해 볼 계기가 될 것입니다. 스토리와 더불어 선명한 색감으로 표현해낸 물속 세상이 매력적인 그림책입니다.

<본문 이미지>





<저자소개>

하야시 마스미

1968년 교토에서 태어났다. 교토세이카대학 미술학부 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었다. 2008년도 갤러리Vie회화학원을 수료하였다. 제10회 핀포인트 그림책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그 외 그림책 작품으로는 《똑똑똑 누구십니까》, 《비구름 피치》 등이 있다.